

— EIAK 소식 —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22일 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본회 구자학 회장, 상공부 한덕수 전자정보공업 국장,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예산 35억 5,000여만원 규모의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 한해동안 전자산업 재도약 기반조성, 기술개발 활성화, 표준화·자동화 촉진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제화 및 대외통상협력 확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분야별로 구성된 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 업계 현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로 임기가 끝난 구자학 회장은 유임됐다. 구자학 회장의 임기는 오는 '95년 2월까지 2년간이다.



가전제품 무자료 거래 및 연금매장 운영개선 연구보고서 설명회 개최



본회 가전산업협의회(회장 : (주)금성사 이헌조 부회장)는 지난 2월 10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금성사 박상갑 이사 등 7개사 14명이 참석하였는데 유통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가전유통업체들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연금매장에서의 가전제품판매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전원재 외국어대 교수는 우리 가전유통시장이 미국, 일본과는 달리 독립적 유통경로가 성숙돼 있지 못하고 기능이 편중돼 있어 유통경로의 왜곡현상을 초래, 제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전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매장에서의 판매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동연구보고서에서는 사이버 연금매장을 포함 전국에 200여개 연금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3.4% 정도이나 일반대리점보다 3~6% 싸게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유통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금매장 가격을 현행 공장도가격의 104%에서 일반대리점 수준인 107%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매장 점포망의 축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VTR 헤드 드럼용 볼베어링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따른 건의

가전산업협의회(회장 : (주)금성사 이현조 부회장)는 지난 2월 24일 상공부, 재무부에 동 품목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를 하였다. 이같은 건의는 지난 1월 28일 상공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예비판정으로 현재 우리 VTR산업의 국내외 여건이 품질면에서 일본제품보다 뒤지고 가격경쟁력은 동남아 제품에 밀리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내 내수도 부진하여 최악의 경영위기에 몰려있는 가전업계의 현상황에서 VTR 핵심 부품인 볼베어링에 6.27%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경우 어렵게 개척한 수출시장을 일본 및 동남아 국가에 잃게 되리라는 판단과 VCR 관련부품업체까지도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동안 VTR 핵심부품을 국산화시켜 공급해 온 한국정밀(주)의 기여도를 감안 전량구매하여 수지개선에 최대한 노력, 수입업체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덤핑률을 3% 이하로 부과해 줄 것을 건의했다.

HA산업협의회

HA 산업협의회(회장 : 삼성전자(주) 김광호 사장)는 지난 2월 4일 본회 회의실

에서 삼성전자(주) 이창우 수석연구원 등 7명이 참석, HA 국내 규격표준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 Speed를 2,400-bps로 결정하고 물리 Address할당 등의 Frame Format을 결정했다.

HA 영업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현대 전자산업(주) 전영택 부장 등 7명이 참석, HA산업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HA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일반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주요 홍보 매체를 통해 HA제품 소개를 적극적으로 펴 나아가기로 했다.

CATV기기 산업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 동양텔레콤(주) 배석채 사장)는 지난 2월 12일 팔레스 호텔에서 전 회원사들이 참석하는 동협의회 연차회의를 개최하고 '92년 사업실적 결산 및 '9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2월 15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 문기대 사장, 대성전자 송재만 상무 등 30여명이 참석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안) 관련회의를 개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센 서분과위원회(위원장: 게코전자(주) 홍기룡 사장)는 지난 2월 3일(수) 게코전자(주) 홍기룡 사장 등 11명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NTC씨미스터 표준화, 전자전 공동참가, 신개발 전자제품 세미나 개최 등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후 NTC씨미스터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NTC씨미스터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를 협의하였다.

모 터분과위원회(위원장: 새한전자(주) 정재선 회장)는 지난 2월 5일(금) 삼성전기(주) 최천 과장 등 6명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중인 분과위원장에 새한전자(주) 정재선 회장을 선임하고 VCR용 Capstan, Drum Motor의 소요부품 표준화 등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디 스플레이분과위원회(위원장: 삼성전관(주) 박경팔 사장)는 지난 2월 17일(수) 경주 조선 Hotel에서 (주)금성사 박명호 책임연구원 등 10명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브라운관용 유리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8", 32" Wide Vision브라운관용 Glass Bulb 표준화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자기미디어산업협회

동 협의회(회장: 새한미디어(주) 한형수 사장)는 지난 2월 15일(월) 새한미디어(주) 김수영 과장 등 Video Tape 생산업체의 실무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한 내수분과(위)를 구성하였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회

전 자의료기기산업협회의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화)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오명환 단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93년도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발굴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산 개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총신청업체 4개사 11개 품목의 심의결과 폐기능 측정기 등 3개사 8개 품목을 채택, 국산 개발 대상품목으로 추천하였다.

도출된 3개사 8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화기기(주)의 폐기능측정기, 인공호흡기, 외부심작동보조장치, 단파물리치료기, 레이저물리치료기. (주)메디슨의 수술용 CO₂ 레이저, 홀터 심전계. (주)동아X-선기계의 유방촬영진단기 등이다.

